

보 도 자 료

문 의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최기성 실장(02-3660-1824), 이은경 책임(1894)

NPR 진신혜 과장(02-2257-6370), 박지영 대리(02-6949-6191)

서울모빌리티쇼,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
- ◆ 국내를 대표하는 모빌리티산업 전시회로 전 세계 홍보 기회
- ◆ 육·해·공 기반의 다양한 모빌리티 전시를 비롯해 시승행사, 메타버스 체험, 풍성한 이벤트 등으로 국내·외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행사로 운영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위원장 강남훈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이하 조직위)는 2023서울모빌리티쇼(Seoul Mobility Show 2023)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함께 추진하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콘텐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100가지 이벤트를 선정한 것이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1차 요건 부합 여부 검토 및 2차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는 K팝 공연부터 뷰티·미식 등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보여주는 '서울페스타 2023', 올해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 미술전람회 '제14~15회 광주비엔날레',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등 국내 대표 축제가 선정된 가운데, 서울모빌리티쇼도 이름을 올리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전시회로 1995년 시작해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산업 전시회다. 국내 대표 전시회로 로서의 상징성을 인정받아 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올해 전시회에는 승용차와 상용차, 슈퍼카 등 완성차는 물론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자율주행선박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차·신차 시승행사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관람객 체험 중심의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는 오프라인 전시 외에도 온라인 공간(메타버스)에 주요 참가 기업의 3D 전시장을 구성, 국·내외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전시회를 관람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선정은 국내 최대 종합 전시회인 서울모빌리티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미래모빌리티 생태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국내·외 관람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통해 종합적인 모빌리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Sustainable · Connected · Mobility(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오는 3월 30일(목)부터 4월 9일(일)까지 총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 '한국방문의 해'엠블럼(제공 : 한국관광공사)

* 별첨자료 2 : 서울모빌리티쇼 '키비주얼'(제공 :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